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 히브리서, 9과, 히브리서 10:1 9-39: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라

© 2024 데이비드 데실바 및 테드 힐드브란트

저자는 설교 전반에 걸쳐 설명과 권면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지만, 가장 큰 설명과 권면 블록은 중간과 마지막에 미루었습니다. 히브리서 7:1에서 10:18은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과 그 중요성에 대한 견고한 설명 블록입니다. 이제 10, 19에서 설교 끝까지 이어지는 긴 권면 블록에 도달합니다.

이 권고의 첫 번째 부분인 10:19-25는 특히 중요합니다. 저자는 10:19-24의 언어가 히브리서 4:14-16의 언어로 매우 구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권고는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 중심 단어에 앞서 나온 권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에 대한 고백이나 공언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담대하게 계속 가까이 다가가라는 권고의 핵심을 본질적으로 파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은 4장 14절에서 16절의 권고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그리스도의 값비싼 선물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설명하지만, 이 반응의 공동체적 측면, 즉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특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 모임은 또한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은 그리스도의 값비싼 선물을 무시하거나 버리는 불의하고 배은망덕한 반응에 따르는 무서운 결과를 묘사함으로써 이 긍정적인 권고를 뒷받침합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그룹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이상 희생할 것이 없는 의도적인 죄로 해석합니다. 10:32-39에서 저자는 청중에게 그들이 이전에 고귀하게 추구했고 여전히 추구하고 있던 길을 계속 가라고 권하고, 유익한 효과, 충성심과 확고함을 유지하는 것의 축복적인 효과, 그리고 물러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의 파괴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고대 권위의 인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저자는 청중에게 물러서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을 보이고 충성심과 확고함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라고 명확하게 권합니다.

영혼의 보존으로 이끄는 특성으로 믿음이나 신뢰를 식별함으로써 저자는 1장에서 믿음의 의미와 자세를 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명한 믿음 장인 피스티스 또는 믿음의 미덕에 대한 찬사는 10:19-39의 권고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1-3은 믿음에 대한 찬사를 예수 자신의 모범에 근거한 권고로 마무리하는데, 이는 믿음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2장 나머지 부분에서 지속하라는 관련 권고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설교는 13장에서 도덕적 지침과 권고로 마무리되며, 12장 28절의 권고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즉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경배하는 감사를 붙잡아야 한다는 권고를 전개합니다. 상호 봉사, 신성한 후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예수에 대한 충성심, 경배는 모두 신자들이 종말론적 흔들림에서 받는 것, 즉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전도자가 5장 11절에서 경고한 메시지를 마치고, 그 메시지는 길고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이제 자신이 펼쳐 온 진리를 듣는 사람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그는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어 주신 길이요, 하나님의 집안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는 참된 마음과 확신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는 마음에 악한 양심을 뿌리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었으니.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하시니, 서로 사랑과 선행을 힘써 행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서로 모이는 일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하자. 그날이 가까와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저자는 여기서 수신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필수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집안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그들을 그리스도인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전 어느 시대도 누리지 못했던 성화, 즉 지상의 문턱뿐만 아니라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는 성화를 부여받았습니다. 믿는 이들이 지금 성소에 들어갈 권한을 소유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신 이전 일, 특히 우리의 선구자로서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휘장 뒤로 지나가셨고, 믿는 이들의 소망은 그들을 그분과 그들의 운명에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이제 저자는 휘장을 통한 새롭고 살아있는 길, 즉 이전에 첫 번째 언약 아래 가려져 있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것을 축하하고, 그와 그의 회중이 건너갈 준비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축하합니다.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의 집안에 깊이 뿌리박힌 것에 대해 웅장하게 말함으로써, 믿는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도전 속에서도 희망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그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은 보장됩니다.

저자는 그들이 누리는 이점을 감안하여 믿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의 반대이며, 저자는 어떤 청중이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면서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 앞에 있는 대안적인 행동 방침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희생의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에 나아갈 준비를 했으며,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신에 찬 접근을 위해 몸과 마음이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예수의 피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나쁜 양심의 오염을 깨끗이 했으며, 이는 9절 1절에서 10절 18절까지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이 내적 정화의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표시는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세례를 언급했을 것이며, 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보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저자가 이 시점에서 순수성

언어를 적용하여 마음에 뿌리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은 또한 기독교 집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특징짓는 죽은 행위로 더럽혀진 외부 사람들 사이의 차이와 경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독특한 정화와 헌신의 과정을 통해 구별된 사람들로써, 신자들은 더 이상 이웃과 동일하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웃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이 그들을 다르게 느끼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행동 방침에 대한 모호한 제안이지만, 적어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남아서 그들의 여정을 중단하는 대신 기독교 순례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 또한 청중들에게 이전에 3절 6절과 4절 14절에서 했던 것처럼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으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반복은 기독교 문화의 핵심적 신념과 기대를 붙잡고, 이 소망에 대한 공적 고백을 주저 없이 붙잡으라는 이 권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집단과 지속적으로 눈에 띄고 공적으로 교류하고 각 구성원이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말입니다. 설교자가 여기서 붙잡으라는 근거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신뢰성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설교의 주요 주제였으며, 3장에서 전개된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신뢰성을 인식하고 존중하지 못한 것부터, 6장에서 언급된 아브라함의 신뢰를 돕겠다는 하나님의 보증, 6~8장에서 설교자의 청중이 자신의 신뢰를 강화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 특히 예수의 영원한 신권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가 시작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광야 세대의 예는 특히 청중이 약속하신 분의 신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저자 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져다주신 소망에 대한 내적 확신과 공개적 증거 외에도 세상의 적대감의 흐름에 맞서 전진하는 여정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투자와 배려를 끊임없이 증가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 구절에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을 읽는 독자는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 예를 들어 NRSV는 10장 24절을 “서로 사랑과 선행을 촉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로 번역합니다. RSV, NIV, 심지어 NRSVUE 개정판도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리스어는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의 폭발로 서로를 계속 고려하자”라는 말만 줍니다. 서로를 고려하는 목적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보이고 더 큰 정도로 친절한 행동에 자신을 투자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NIV나 NRSV에서 발견되는 이런 종류의 번역은 “우리가 고려하자”와 “서로를 고려하자” 사이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텍스트에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어에서 유일한 동사는 *kata naomen* 입니다 . 계속 생각합시다. 서로를 관찰하고 알아차리도록 합시다.

이 동사의 목적어는 서로이고, 사랑과 선행의 폭발이나 폭발은 행동의 목적이나 결과입니다. 저자는 각 그리스도인에게 동료 제자들을 알아차리고, 그들과 그들의 투쟁, 도전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에게 투자한 결과로 그들을 진정으로 보라고 촉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보는 것은 돌봄의 탄생지이며, 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바라시는 선을 나누도록 돕는 목적 있는 행동을 낳습니다.

따라서 다소 기능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더 나은 번역은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자, 서로를 진정으로 바라보아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선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저자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외부의 멸시와 적대감을 참아내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더 바람직하게 만드는 관계와 지원 구조를 만들라는 권고와 연결되며, 교회 내에 존재하는 사랑과 교제와 상호 존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 요점을 강화하여, 잘못된 행동 방침과 유리한 행동 방침을 대조하고, 스스로 모이는 것을 버리지 않고 서로 격려합니다.

이제 저자는 일부, 아마도 아주 소수의 회중 성원이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러남은 모든 감사의 감각에 반하는 것으로, 주는 사람에게 빛을 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큰 선물을 준 후원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물러나면 남아 있는 사람들도 낙담하여 값비싼 희망을 붙잡으려는 결심이 침식됩니다.

또한 그것은 서로를 견뎌내도록 돕는 그룹의 전반적인 자원을 감소시킵니다. 그들은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점점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하도록 촉구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고백의 종말론적 차원을 상기시킵니다.

그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시계가 똑딱거리면서, 신자는 덜 열렬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열렬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신실한 자들에게 보상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그동안 인내와 헌신, 투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 다음 구절에서 저자가 제시할 가장 엄숙한 경고 중 하나로 전개될 것처럼, 이 날은 처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 승인할 만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인 교제와의 눈에 띄는 교류에서 물러나는 대안적 과정을 고려함으로써 그의 긍정적인 권고를 뒷받침합니다. 설교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언어로 이를 수행합니다. 그는 어떤 행동 과정을 가장 큰 배은망덕함을 보이는 것으로 비난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불명예와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계속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대와 반대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이 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는 두세 증인의 말로 무자비하게 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을 만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는 내게 속한다.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신 분을 압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자가 이 구절에서 죄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10장 24절과 25절에 의해 조건지어집니다.

이것은 믿는 이가 싸워야 할 지속적인 죄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진실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소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숨기거나 포기하는 일시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죄인들의 적대감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뎌야 하는 고난보다는 죄인들의 우정과 죄인들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더 선호합니다. 저자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그는 토라, 특히 민수기 19장 22절에서 31절에서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에 대한 규정된 희생이 있는 죄와 거만하게 또는 높은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한 처벌만이 있는 죄에 대한 구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로마 도덕주의자들은 또한 고의적인 잘못을 더 엄격한 처벌에 합당하다고 비난합니다. 설교자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선택한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탈자 또는 비겁한 신자는 예수와의 관계를 숨길 때 실질적인 필요에 굴복한다는 생각에서 위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로는 공의롭고 은인에게 감사하는 보편적인 법칙인 계약에 대한 자발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자가 여기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없다고 말할 때, 그는 10장 18절에서 몇 구절 전에 사용한 언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없다는 확언은 예수께서 제공하신 결정적인 용서와 양심의 정화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일한 언어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형성한 후에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을 한 번만 바쳤다는 특성, 즉 반복될 수 없는 제물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물과 그러한 관계가 유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고 예수의 피 자체에 대해 심각한 모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저자가 27절에서 말했듯이, 적대자들을 소멸할 직전의 뜨거운 불에 대한 기대뿐입니다.

저자는 이사야 26장 11절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구절에서 질투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고, 불은 적들을 먹을 것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성경적 언어를 확대했습니다. 질투는 이제 불 자체를 열렬한 불로 묘사합니다.

그 결과는 저자가 단순한 미래 동사 대신 동사 원형을 사용한 그리스어 동사 *mellow*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임박한 것으로 제시되며, 이는 적대자들을 소멸할 직전의 열렬한 불, 곧 적대자들을 소멸할 불입니다. 저자가 제안한 행동 방침을 거부하는 자들은 계속 가까이 다가가서 심판이라는 엄숙한 전망에 직면하게 되는데, 다가올 현실이며, 그 심각성은 저자가 28, 29절에서 제시하는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의 주장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이 주장에서 더 작은 사례는 신명기 17장 6절에서 나오는데, 모세 언약을 고의로 어긴 결과 두세 증인의 증언에 따라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전제는 예수가 모세보다 더 큰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꽤 일찍 확립되었습니다. 질문의 형태로 표현된 저자의 결론은 예수와 신자들 사이의 새로운 유대감을 고의로 어길 경우 그에 비례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며, 그러면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이 따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저자는 그러한 행동 방침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꼼찍하게 만들기 위해 그룹에 대한 확고한 헌신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노골적인 용어로 제시합니다. 마치 그가 이웃의 수용을 하나님의 은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룹에서 물러서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신의 명예에 대한 삼중적 공격으로 묘사되며, 특히 그러한 공격은 후원자-고객 관계를 침해하고, 신성한 후원자에게 감사가 아니라 모욕을 돌려주기 때문에 사악합니다. 첫째, 배교자는 신의 아들을 짓밟은 사람입니다. 설교 전반에 걸쳐 나타난 예수님의 칭호가 신의 아들이라는 상기는 범죄의 뻔뻔스러움을 높이고, 모욕을 신의 명예와,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신의 추정된 결심의 맥락에 놓습니다.

또한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그런 모욕을 행하는 것을 꺼리게 하기 위해 고안된, 놀라울 정도로 아이러니하고 부적절한 이미지입니다. 사실, 지금 조롱을 받고 짓밟힐 수 있는 사람은 곧 그의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될 사람입니다. 저자가 히브리서 1:13과 10:13에서 주장했듯이요. 둘째, 떠나려가는 사람은 자신이 거룩하게 된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 피 덕분에 신자들은 예수를 대신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결정적으로 신의 은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자의 혜택, 그 중 가장 큰 혜택은 후원자로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사회의 학대와 조롱을 감당할 만큼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집단에서 이탈하여 은혜의 영을 모욕한다면 이러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카리스, 모욕이나 모욕과 호의나 친절한 기질 사이의 대조는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다. 사실, 호의와 은혜의 약속을 모욕으로 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은 배은망덕, 즉 가장 비열한 악행을 행하기 때문이지만, 또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수의 값비싼 중재로 얻은 이점이 크지만, 예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함으로써 오는 해악도 크다. 배은망덕한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은총을 위해 모욕을 갚는 자는 처벌을 받을 만하다는 확신은 1세기에 흔한 일이다. 하나님과 아들의 명예에 대한 도전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예를 옹호하시는 결과를 가져온다.

잘못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10장 29절에 있는 이 세 가지 비난에 대한 묘사와 그러한 모욕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있을 수 없다는 암시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에서 인용한 내용을 통해 그러한 처벌의 확실성을 뒷받침합니다. 신명기 32장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복수하신다는 사실이며,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1절에서 “원수는 내 것이니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복수는 내 것이다. 나는 신명기 32장 35절을 낭송하는 것처럼 갚을 것이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독해를 합친 것이다. 원래 맥락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적에게 짓밟힌 후에 그들을 변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고가 됩니다. 다음 낭송, 주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는 다음 구절인 신명기 32장 36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래 맥락에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변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변호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된 전체 구절입니다. 그러나 변호하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신명기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에서는 심판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어 동사 *krinane*은 변호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번역은 저자가 한 것처럼 구절을 읽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궁극적인 위험은 이웃의 괴롭힘과 거부를 계속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화합니다. 사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자는 이 설교에서 두려움에 대한 호소와 확신에 대한 호소를 번갈아 가며 했고, 이제 그는 1026-31의 무서운 경고에 이어서 수신자들이 계속 유지한다면 확신에 도움이 될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빛을 받고 큰 고난의 경쟁을 견뎌낸 지난날을 기억하십시오. 일부는 비난과 시련으로 구경거리가 되었고 일부는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동료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했고, 더 좋고 오래 지속되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집단의 과거 업적에 대한 호소는 종종 미래의 노력에 대한 격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키투스의 아그리콜라의 절정에서 로마 장군은 다음과 같은 말로 군대를 규합합니다. 우리가 여행한 긴 길, 우리가 뚫고 지나온 숲, 우리가 건넌 하구는 모두 우리가 눈을 정면으로 유지하는 한 우리의 명예와 명예에 보답할 것입니다 .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다른 군대의 사례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전투 영예를 떠올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연설의 수사적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호소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그룹이 이전에 요구된 것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듯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자원과 체력을 가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둘째, 이미 많은 것을 투자한 기업을 포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셋째, 장군은 듣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과거의 업적과 명예가 행동하고 현재를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의 주의를 이전의 인내와 충실한 행동으로 이끌면서 이 수사적 기법의 삼중적 힘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절을 소개 부분에서 이 공동체의 실제 과거 경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저자가 그것을 넣은 에피소드의 수사적 사용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보상하시는 신실함에 대한 놀라운 예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청중이 적대감에 직면했을 때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내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구절의 두 요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만합니다.

저자가 “당신은 큰 고통의 경쟁을 견뎌냈습니다”라고 썼을 때, 그는 듣는 사람이 이전에 겪은 굴욕과 학대, 즉 처음에 소외감을 표시한 경험을 희생자가 된 불행한 경험이 아니라 큰 경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운동적 이미지를 통해 굴욕과 소외감을 명예를 위한 경쟁으로 바꾸는데, 이는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적 은유는 그 시대의 소수 문화권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리스-로마 철학 텍스트, 유대교 텍스트, 초기 기독교 텍스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유는 외부인이 반대와 적대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복하고, 심지어는 뒤집는 수단입니다. 저자는 1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 은유 분야로 더 자세히 돌아갈 것입니다. 거기서 듣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죄와 죄인에 대한 경쟁, 승리의 상을 얻기 위한 노력, 그들 앞에 놓인 희망으로 보도록 촉구받을 것입니다. 이는 신성한 역사 전반에 걸쳐 용감하고 성공적으로 싸운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증인의 구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11장에서 저자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퍼레이드에서 만든 구경꾼의 구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청중들이 항복함으로써 적대자, 적대적인 이웃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싸우도록 촉구받는 것은 그러한 구경꾼들의 승인을 위해서입니다. 저자는 또한 적어도 일부 신자들이 재산을 압수당해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더 크고 오래가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지상의 눈에 보이는 영역에 속한 소유물은 천상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소유물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영역만이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의 종말론적 제거를 견뎌내거나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1장 10절에서 12절에서 암시했고, 12장 26절에서 28절에서 다시 명확하게 제시할 것처럼, 지상의 소유물은 단지 일시적인 명예와 즐거움만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들의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도시에서 그들을 위해 예약된 더 좋고 지속적인 부에 마음을 두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의 과거 행동과 헌신, 서로에 대한 그들의 용기와 관대한 이전 행위를 칭찬과 자존감의 원인으로 바꾸어 그들이 같은 행동 경로를 계속하도록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35절과 36절에서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큰 상을 주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담대함, 그리스어로 파레시아는 설교 전반에 걸쳐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중재된 하나님께로의 열린 접근에 대한 수신자의 확신을 말합니다. 지금 아들에 대한 불충실함과 무례함을 보이는 자들은 확실히 이 담대함을 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수치스러운 기술을 견뎌낸 데 반영된 그들의 희망에 대한 수신자들의 공개적인 선언, 사회에서 가장 변태적 통제 기술로 인해 가장 singled out된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교류하는 데까지 확장된 담대함을 언급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그들이 아직 바라던 은혜의 중요성을 대중의 눈에 공개적이고 자신 있게 증명했습니다. 이웃의 비난에 직면하여 계속해서 담대함을 증명한다는 것은 또한 마지막 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가진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반대와 상실에 직면하여 인내심, 지속적인 결의, 용기를 촉구하여 청중이 이미 많은 투자를 한 보상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투자해야 할 대부분의 부분이 이미 뒤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이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그저 붙잡아야 합니다.

보상의 근접성과 따라서 이 경연에서 남은 시간이 짧은 것은 저자의 전략 전반에 걸친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에서 저자는 경전적 언어를 사용하여 보상을 받기까지 남은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인상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긴 퍼레이드로 강화될 것이며, 이 경연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목록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듣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37, 38절에서 읽듯이, 아주 잠깐 후에 오는 자가 와서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물러가도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자는 이 구절에서 성경을 창의적으로 편찬했습니다. 첫째, 그는 이사야 26장 20절에서 아주 잠깐 후에라는 구절을 빌려서 보상과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감각을 고조시켰습니다.

원래 맥락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방에 숨어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기간에 대해 말합니다. 이 새로운 맥락에서 이 말씀은 다가올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방문이 가까움을 강조하고 조금 더 오래 헌신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에게 그 유산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는데, 바로 광야 세대가 비틀거리며 영원히 비열한 불신과 불순종의 패턴이 되었을 때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실제로 하박국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하박국의 칠십인역 번역본으로, 그리고 히브리어 저자가 제공하는 종류의 재작성 버전으로 약간의 진전을 볼 수 있으며, 그 성경의 자료를 그 시대의 목회적 필요에

더욱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정해진 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 그것은 종말에 대해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연되는 듯하면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교만함을 보라.

그들의 영은 그들 안에 바르지 않지만,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산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칠십인역, 하박국서 2, 3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읽는다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것이다. 아직 종말에 대한 환상이 있으며, 그것은 마침내 밝혀질 것이고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또는 그가 지체하면, 그것 또는 그를 기다리라. 오는 자가 도착하고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어에서 대명사에는 그것이 환상을 가리키는 *it*로 읽어야 할지, 아니면 오는 인물을 미리 바라보는 *he*로 읽어야 할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 사실, 그리스어 번역은 언어를 바꾸어서 우리가 환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오는 자, 미래의 어떤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칠십인역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가 물러선 다면 내 영혼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본문의 히브리어 버전에 있는 것은 교만한 자의 비난이 다가오는 자에 대한 진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다가오는 자가 비겁함을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것을 표현한 방식은 둘 다와 다릅니다.

오는 자가 와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가 물러선다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박국 2:4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순서를 칠십인역에 나와 있는 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뒤로 물러선다면, 그는 더 이상 오실 분에게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의로운

자들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신뢰와 확고함을 기다리는 자들은 살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요, 마음이 쇠약한 자들, 뒤로 물러서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라. 이 변화는 저자의 목회적 목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박국 본문은 이제 두 가지 행동 방침을 설명합니다. 신뢰하고 확고하게 남는 것과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전자는 명백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반면, 후자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비난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두 가지 핵심 용어인 뒤로 물러섬과 믿음을 사용하여 대조를 구성함으로써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뒤로 물러서는 자들 중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믿음을 가진 자들 중 하나입니다.

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두 구절을 다시 옮겨서 두 그룹과 그들의 속성을 구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신뢰와 확고함을 보이는 자들, 즉 생명을 보존하는 자들과 비겁함과 불신을 보이는 자들, 즉 광야 세대의 방식대로 죄인들의 적대감 앞에서 물러나 멸망에 빠지는 자들을 구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자는 청중들이 첫 번째 그룹과 동일시하도록 분명히 배치했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그룹의 운명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설교자는 매우 집중된 텍스트 부분에 강력한 수사적 힘을 담았습니다.

이 21절에서 그는 청중의 감정에 여러 가지 호소를 담았습니다. 설교자는 10:19에서 25까지 자신감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며 청중이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붙잡고 잘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자는 26절에서 31절까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호소로 전략적으로 이어가 청중이 현재 상황에서 신성한 후원자를 무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게 합니다.

그는 32절에서 36절까지에서 청중의 과거 모범에 호소하여 자신감에 대한 또 다른 호소로 이를 이어갔습니다. 즉, 청중이 이미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시는 일을 했으며, 그저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결말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이 섹션을 합리적 논증에 대한 호소로 채웠는데, 특히 상대적 이점, 정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자는 청중에게 그들 앞에 있는 대안을 따져보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결정하도록 계속 권했습니다 .

그는 이 21절에 걸쳐 그들이 누리기 시작한 영원한 재물과 영원히 유익한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의 일시적인 재물과 우정을 계속 희생할 의향이 있어서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후 영원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는 정의에 대한 고려, 특히 자신에게 이로운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추가합니다. 따라서 그는 듣는 사람들에게 우주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강력한 존재에 대한 무례함이나 듣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귀중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들에게 배은망덕함을 보이는 행동 방침을 피하라고 촉구합니다.

저자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 사항을 더 추가합니다. 청중은 이전과 더 가혹한 조건에서 견뎌냈습니다. 그들 자신의 역사는 그들이 계속하고, 그들 뒤에 있는 작업과 투자의 양으로 계속 견뎌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더 어려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전체를 뒷받침하면서 저자는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일상적인 도전과 그 도전을 완화할 수 있는 것에 집중시키지 않고, 마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인 것처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만나는 궁극적인 도전에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취해야 할 일상적인 행동 방침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저자의 설교의 이 부분은 또한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상황에 대한 특정한 도전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심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 그는 듣는 사람들에게 교제에서 물러나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을 투자하라고 촉구하며, 특히 다가올 날의 빛 속에서 그 교제 안에 있는 자매들과 형제들을 격려하는 데 투자하라고 촉구합니다.

10장 34절에서 그는 과거에 서로에게 투자한 방식에 대해 듣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이를 통해 미래에도 계속 행동하도록 자극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설교에서 그리스도인 제자도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개별 제자들은 종종 인내를 방해하는 압력과 인내를 고갈시키는 것이 자신의 내적인 개인적 인내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압도당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러한 압박에 직면하여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각자가 견뎌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도전은 우리의 지역 회중을 넘어 세계 교회, 특히 그리스도인의 이웃과 종종 그들의 정부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침식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와 국가에 적용됩니다. 설교에서 읽거나 들을 때, 서로를 바라보자, 정말로 서로를 바라보자, 그러면 사랑과 선행이 폭발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자매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교회에 있는 우리 가족, 예수님의 자매와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시기적절하게 개입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성한 후원자와 그의 은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얻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므로, 세상의 적대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 방향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릴 것입니다.

세상과의 잃어버린 우정에 대한 후회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 발을 질질 끌면, 우리는 다시 베푸는 분과 신의 우정의 가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특권과 이점에 대해 약간의 존중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받은 선물의 위대한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마음, 정신, 몸, 욕망을 포용하는 감사로 신에게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나 존경, 또는 이 세상이 정의하는 지혜에 더 신경을 쓴다면, 세상의 규칙을 계속 따르고 우리의 야망을 세상의 약속에 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그 삶을 걷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의 피에 너무 적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호의를 얻고, 그 다음에 세상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의 약속된 혜택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웃, 직장 동료, 동료 시민들의 승인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이며, 불신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의 승인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지 보여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다른 모든 것에 충실히 주의를 기울이고 남은 시간, 자원, 에너지를 종교적인 관심사에 바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선택, 행동, 야망이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어떤 세상적인 대상도 우리를 우회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온전한 활력과 온전한 신뢰, 확고한 헌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광대함에 대한 묵상은 또한 유혹에 대항하는 강력한 약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평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접근, 성령과의 일상적인 우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정하신 운명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특정한 죄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싶은가요 ?
 그것이 무엇이든요? 우리는 오직 선함만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드리고 싶은가요?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와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나 단기적으로는 쉽거나 유익하거나
 즐거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인 행동을 생각할 때 감사가
 요구하는 반응을 저울질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밖의 세상과의 만남에서 담대함을 요구받습니다.
 민주주의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기독교 증거와 제자도에 관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언론, 파레시아 또는 담대함을 억압하는 많은 압력이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 종교의 사유화는 하나님에 대한 연설이 특정 장소, 교회,
 집 등에서만 적절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속화는 종교적 추구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지만 선택 사항이고, 너무
 많은 투자는 의심의 눈초리로 여겨지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물질주의,
 즉 유형 세계가 주된 세계라는 관점은 시간적 관심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안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날씨, 정치, 영화 등은
 기도와 명상 시간에 경험한 신, 특정 죄에 대한 투쟁에서의 진전, 신의
 도전과 부르심에 대한 인식보다 더 자주 대화 주제가 됩니다.

많은 비서구 국가의 장애물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한 모든 장애물을
 고려할 때,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니면, 아직 담대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할 자유를 찾아보세요.